

**후보직 출마에 대한 소견**

본인 유재선은 경희의료원 임상현장에서 37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간호사의 최고 리더인 간호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이번 대한간호협회 이사직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, 사회적·경제적 지위향상 및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대외활동과 한국간호의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

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,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평가위원, 서울시병원간호사회 회장,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이사로서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.

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임상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인 간호사 인력수급을 위한 정책 및 대책방안 마련과 간호 단독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